

번역의 전략과 평가

- 일시 : 2012년 5월 19일 (토요일), 09:00-13:0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 (B1)

Ksci 한국통역번역학회
제14차 정기학술대회

번역의 전략과 평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통역번역학회 제 14차 정기학술대회 : 번역의 전략과 평가

일 시 : 2012년 5월 19일 (토요일), 09:00-13:00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 (B1)

09:10-09:20	개회사 임향옥, 한국통역번역학회 학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	---

- 제 1 세션: 번역 전략
좌장: 이태형 (한양대학교)

시 간	발 표
09:20-09:40	“뉴스 번역 전략 분석” 조재범 (한국외국어대학교)
09:40-10:00	“신문에서 고찰한 경제용어의 번역” 성승은 (송실대학교)
10:00-10:20	“Translator’s Education Background and Translation Readability” 장민호 (금강대학교)
10:20-10:40	토론 및 질의응답: - 조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미경 (경희대학교)

- 제 2 세션: 번역 평가
좌장: 김대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 간	발 표
10:40-11:00	“문학번역의 평가와 수용: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정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11:00-11:20	"Proposing Corpus-based Approach to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박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11:20-11:40	“한국문학번역과 처방적 번역규범의 문제” 윤후남 (홍익대학교)
11:40-12:00	토론 및 질의응답: -남원준 (한국외국어대학교) - 전현주 (한북대학교)
12:00-12:30	정기총회 및 폐회

12:40 점심식사 (중국식당 <영화장>)

뉴스 기사 번역 전략 고찰 - 국내 정치 관련 사설의 한영번역을 중심으로 -

2012. 5. 19
조재범

목차

- ▶ 연구 목적
- ▶ 연구 대상
- ▶ 이론적 배경
- ▶ 번역 전략 고찰
- ▶ 결론



연구 목적

-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뉴스 번역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모든 언어가 동등한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 (“minority language”) (Bielsa & Bassnett, 2009:6)
- 소수 언어인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 시 잘 알려지지 않은 용어의 번역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점이 있는가?



연구 대상

- ▶ 한영 사설 번역
- 국내 정치 관련 사설 10편 (2012년 4월-5월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설)
- 해외 독자 입장에서 ‘낯선’ 국내 표현의 한영 번역 시 보존, 대체 및 생략의 관점에서 전략을 고찰 (뉴스 번역만의 특징인지, 한영 번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지 비교 가능)



이론적 배경

- ▶ 번역 전략 – Aixela(1996)의 문화특정항목(Culture-specific items)의 번역 전략 차용
 - 보존과 생략 관점에서 번역 전략을 고찰
 - Aixela가 유용한 이유: 해외 독자들에게 한국 정치 관련 내용은 문화특정항목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유사할 수 있으므로



번역 전략 - 생략

- 1) ST: '왕차관 검은돈' 끝까지 파헤쳐라
TT: Getting to the very bottom
(중앙, 2012. 5. 9)
- 2) ST: 18대 국회, '언론장악 방지법' 만들고 끝내라
TT: Broadcast Act must be amended
(한겨레, 2012. 4. 21)



번역 전략 – 보존

- 1) ST: 노조가 문제 삼은 방송법 46조는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손질이 필요하다.
TT: Article 46 of the Broadcast Act that the union took issue with, is in need of adjustment to prevent “parachute appointees” as network presidents. (한겨레, 2012. 4. 21)
- 2) ST: 박 전 차관은 현 정부 들어 ‘왕(王)비서관’ ‘왕차장’ ‘왕차관’으로 불려온 실세 중 실세였다.
TT: Park was one of the most powerful figures in the administration as seen by his various nicknames like “King secretary” or “King minister.” (중앙, 2012. 5. 9)



번역전략 - 대체

- 1) ST: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그제 밤 구속 수감됐다.
TT: Park Young-joon, former vic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was finally arrested and put in jail on Monday. (중앙, 2012. 5. 9)
- 2) ST: 12일 발생한 통합진보당 당권파 폭력사태는...
TT: The shameful violence of the mainstream fac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that broke out at an intraparty meeting last Saturday...
(중앙, 2012. 5. 14)
- 3) ST: 오는 15일은 김일성의 100번째 생일이다.
TT: April 15 marks the centenary of Kim Il-sung, the founder of North Korea,
(조선, 2012. 4. 3)



결론

- ▶ 세부적인 내용의 경우 번역사의 판단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 ▶ 신문사별로 생략, 보존 및 대체의 비율이 유의하게 다름 (한겨레신문의 경우 보존, 중앙일보 및 조선일보의 경우 대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에 대한 변수 연구의 필요성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기사를 번역하는지 외주를 주는지, 혹은 해당 신문사에 내부 번역 규칙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비교적 짧은 기간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전략을 고찰한 바 추후 대상 텍스트를 넓이면 뉴스 기사의 하위 분야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설 vs. 기사, 내신 vs. 외신, 활자 매체 vs. 미디어 등)
 - ▶ 또는 1990년대 이뤄진 번역과 비교하여 시기별 번역 양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신문에서 고찰한 한국의 외환위기 시기의 경제 용어 번역

성승은(숭실대)

I. 서론

전문 용어는 외국에서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강경화, 2011: 90). 한국에서는 지난 1997년 일명 “IMF 시기” 라고 불리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가 제공하는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면서 많은 경제 용어가 일반인에게도 익숙하게 소개되었다. 특히 신문지상에서는 “생경한 경제용어가 일상용어로”(경향신문, 1998.10.8), “외국 경제용어 붓물 우리말 번역 골머리”(경향신문 1998.10.10)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들 이 시기에 유입된 용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거친지 10년도 지난 이 시점에서, 당시에 일반인에게 소개된 경제 용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정착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전문 용어의 표준화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엄밀히 말해서 이들 용어는 외환위기 당시 처음 유입되었다기보다, 기존에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용되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주로 신문, TV 등의 언론을 통해 처음 소개된 용어들이다. 먼저 외환위기 당시부터 신문지상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경제 용어를 확인하고, 이들 용어가 IMF 당시에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약 2년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 후 이들 용어를 국내의 전문 용어 표준화와 관련하여 조명해 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전문용어

1.1 범위

전문 용어는 대체로 “전문 분야에서 쓰는 말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김한샘, 2008: 94)로 정의되고 있다. 김한샘(2008: 94)에서는 ‘전문 용어’를 ‘용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예를 보면 높이뛰기, 카메라, 먹는 약(이현주, 2007: 43-46)¹ 등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쓰이는 용어들이 포함된다. 이현주, 조동성(2011:253-255)에서도 전문 용어를 일상 어휘 및 고유명사와 뚜렷이 구분하기 힘들다고 논한다. 또한 강경화(2011)에서는 2006년 국어기본법 이후부터 전문 용어의 공공 언어의 기능이 주목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문 용어는 이제 일상적인 의사소통 영역과 구분되는 어휘가 아니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이를 관리·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한다. 국어기본법 17조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해야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¹ 이현주(2007)는 참고문헌의 국립국어원(2007)와 동일한 저서이다. 본문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밝히기로 한다. 참고문헌에 제시된 다른 국립국어원의 저서도 본문에서는 모두 저자의 이름을 밝혀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을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신문지상에서의 경제 용어를 전문 용어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전문 용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신문에서 이 용어들이 어떻게 정착되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1.2 표준화

전문 용어 연구에서는 표준화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박창원(2009: i)에서는 전문 용어는 한 학술 영역이나 전문 분야를 이루는 근간이며, 오늘날과 같이 전문 용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개념 정립과 전달에 있어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 용어의 정비 혹은 표준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새로운 외래어가 유입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용어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전문 분야를 상징하고 이 분야의 용어들을 정비하는 것이다(박창원, 2009: i). 표준화 작업은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이에 맞는 용어를 찾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 용어학에서는 단어로부터 의미로 가는 어의학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가는 명칭론적 접근방식 이용되고 있다(이현주, 2007: 1). 예를 들어 ‘affirmative action’은 ‘차별 철폐 조치’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단순히 ‘긍정적 행위’라고 직역했다면 의미 전달이 매우 미비한 용어가 되었을 것이다(박창원, 2009: iii). 이처럼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전문 용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이현주, 2007: 1-2)

1. 의미의 투명성에 중점을 둔다.
2. 용어의 개념이 그 전문 분야에 속하는 개념의 총체와의 관련 하에 정의된다.
3. 하나의 개념이 있을 때 이론적으로는 단 하나의 명칭만이 주어져야 한다.
4. 기존의 어휘를 바탕으로 생성된다. (예: 일상어휘의 기표(significant)를 가져 와서 지칭하는 경우, 합성·축약·사어의 재활용 등을 통해서 전문 용어를 만드는 경우)
5. 동형어(homonym)가 인정된다. (예: ‘핵’의 경우 물리학에서의 개념과 식물학에서의 개념이 다르므로 명칭과 개념 간 일대일 대응성이 성립한다고 보고 동형어로 처리)

한편 박창원(2009:1-11)에서는 전문 용어를 만드는 지침으로 다음의 4가지를 강조한다.

1. 의미의 명확성-전문 용어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2. 개념의 일관성-새로운 용어와 기존 용어의 용법이 일관되도록 하고, 다른 분야의 용어와도 의미나 형태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용어의 친숙성-친숙하고 쉬우며 간단한 것으로 한다.
4. 용어의 생산성-전문 용어는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에 맞고 다른 용어 현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위 지침은 국제표준화 기구 ISO의 용어 형성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ISO에서는 투명성, 일관성, 적합성, 언어경제성, 파생력, 언어적 정확성, 모국어 선호의 7가지를 제시한다(이현주, 2007: 2-5). 이 중 ‘모국어 선호’는 박창원(2009)에서 제시한 외래어 번역 지침과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문 용어 정비 작업은 단체, 기구 별로 이루어져 그 파급력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2005년에 공포된 ‘국어기본법’에 국가가 전문 용어의 정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정부 각 부처에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각 부처에서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경우가 있으면 먼저 해당 부처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국어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 후 전문 용어를 해당 부처의 장관이 고시하고 고시된 전문 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박창원, 2009: 90-93).

2. 외래 전문 용어의 번역

김성원, 김정우(2011)는 전문 용어의 번역과 관련하여 번역학자에게 주어진 과제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학술 분야에서 전문 용어가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긴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 용어는 번역의 결과이며 따라서 번역학의 연구 대상이며, 둘째로, 전문 용어 고유의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어휘의 형태에 이러한 전문 용어만의 특징이 드러나야 한다.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전문 용어가 일반적인 번역과정과 다른 점은 전문 용어의 번역은 그 단위가 통상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뿐이다(김성원, 김정우, 2011: 35).

2.1 외래 전문 용어의 번역유형

이현주(2007:29-43)에서 제시한 외래 전문 용어의 번역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음운 차용- 음차
2. 문자 차용 - 한자어권 나라의 용어를 가져와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표기한 경우
3. 의미 차용-직역
4. 의역-확장 번역, 환언적 번역, 비유적 번역 확장 번역
5. 혼합번역-음운 차용+의미 차용, 문자 차용+의미 차용, 문자 차용+음운 차용

위에서 직역은 원어의 의미단위 하나하나를 그대로 문자 번역하여 우리말 용어로 만든 경우를 말한다. 의역에서 확장 번역은 단어간 대응 관계를 찾아볼 수 있고 이에 덧붙여 개념을 잘 드러내기 위해 단어를 첨부하는 경우이다. 환언적 번역은 원어의 문자 의미에서 벗어나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부연하는 경우이다(예: peace-making 조정 [정치학]). 비유적 번역은 원어 용어에 대해 비유적 방식으로 한국어 용어를 만드는 경우이다(junk bond: 냄파주 [무역학]).

김성원, 김정우(2011)는 기존의 연구에서 번역의 형태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번역과정에 초점을 준 연구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학용어사전을 중심으로 원어와 번역어의 구조가 어떻게 대응되는가와 어떠한 번역 기법이 적용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번역의 유형은 번역의 깊이(형태 또는 의미 번역의 정도)와 폭(구조 변화의 정도)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는데, 번역의 깊이를 영번역, 음성번역, 의미번역, 혼용번

역으로 분류하고, 번역의 폭은 대칭번역과 비대칭번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번역의 방법을 조사하는 기준으로는 Vinay & Darbelnet의 비교문체론에서 논의되는 7가지 번역기법을 채택하였는데(Munday, 2000: 56-69) 조사 대상 번역 가운데 축자번역(단어 대 단어 번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전위의 기법이고, 그 다음으로는 차용의 기법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원어의 음성 정보를 차용(즉 음차역)한 용례가 국어 어휘 가운데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은 10%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 저자들은 전문 용어의 번역에 참여한 작업자들이 우리말 번역의 표현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가능하면 음성 정보를 차용하지 않는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며, 전문 용어 번역기준으로 제안되고 있으나(이현주, 2007: 49-52), 실제 일반 사용자들이 이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한편에서는 전문 용어의 정립(표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차용 방식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정립 노력과는 별도로 차용어를 계속 사용한다면, 그 괴리가 좁혀지기 힘들 것이다(cf. 이현주, 조동성, 2011: 249). 본고에서는 원어의 음성 정보를 차용하는 번역을 ‘음차역’이라고 부르고, 위 이현주(2007)의 직역 혹은 의역과 김성원, 김정우의 의미번역을 ‘의미번역’이라 부르는 것으로 한다.

2.2 전문 용어 형성원리에 입각한 번역기준

이현주(2007: 49-52)는 전문 용어 형성 원리에 입각하여 번역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용어는 개념적 관계망을 반영해야 한다.
2. 용어와 개념 간 일대일로 대응되어야 한다
3. 개념적 정확성을 드러내야 한다.
4. 간결해야 한다.

위 기준 중 둘째 기준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에서 들어온 용어가 다의어인 경우 선택적으로 달리 번역해야 하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원어는 다의어가 아니지만 이를 지칭하는 한국어 단어가 다수 존재할 때 문제가 된다. 이현주(2007: 50)에서는 그 예로 ‘executive’가 경영자, 임원, 중역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단일한 개념이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동의어로 사용되고 모두 사용빈도가 높다면 이의 번역을 통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도 하나의 개념을 지칭하는 영어 원어가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검색되었다.

Ⅲ. 연구방법

본고는 전문용어가 번역되어 일반인들에게 보급되는 과정을 신문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며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1997년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할 때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경제 용어를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IMF 시기 이전에는 신문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거의 검색되지 않다가 IMF 시기에 검색 수가 급격히 증가한 용어를 중심으로 살피고, 최근 3년 간의 검색을 통해 이들 용어가 어떻게 정착되었는지를 보기로 한다.

시기 구분은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최근의 각 3년으로 나누고 각 기간을 1994.1.1~1996.12.31, 1997.1.1~1999.12.31, 2009.1.1~2011.12.31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날짜는 실제로 1997년 12월 3일이지만, 위와 같이 외환위기를 1997년 1월부터 설정하였다. 이는 97년 초부터 한보철강을 위시하여 많은 재벌 대기업이 도산하며 그 이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경제용어가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용어는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매일경제신문의 <IMF 경제 용어> 시리즈나 IMF에 유입된 용어들을 설명하는 기사들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먼저 이 용어들이 IMF 시기 이전에는 쓰이지 않았는지 확인 작업을 거쳤다.

용어의 검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사통합검색사이트(www.kinds.or.kr)을 사용하였고, 전국일간신문과 경제일간신문의 기사와 사설을 포함하였다. 경제지는 일간신문에 비해 경제 분야를 더 폭넓고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용어의 음차역의 빈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경제지를 중심으로 시험 검색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경제지의 용어 검색에서는 음차역과 더불어 의미번역 역시 크게 증가하여 음차역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제지를 검색 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경제지를 제외하면 검색횟수가 크게 낮아지기도 한다.

IV.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신문에서 그 사용이 크게 증가한 용어를 중심으로 그 번역의 추이를 조사한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아래에 각 유형 별로 몇 개 용어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음차역과 의미번역이 함께 쓰이다가 최근에는 의미번역이 우세하게 검색된 경우

<Moral hazard>

	1994.01.01 ~ 1996.12.31	1997.01.01 ~ 1999.12.31	2009.01.01 ~ 2011.12.31
모럴 헤저드	2	572	714
모럴 헤저드	1	63	5
도덕적 해이	19	984	2894

위 표²에서 ‘모럴 헤저드’ 혹은 ‘모럴 헤저드’는 한국의 외환위기 이전 3년 간 각각 2회와 1회 검색되었으며 이중 1회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검색되었다. 반면 ‘도덕적 해이’는 19회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 또 이 시기에는 ‘모럴 헤저드(윤리결여)’라고 사용된 경우도 있었고(매일경제 컬럼 95. 9.5) ‘도덕적 위험’으로 번역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즉 외환위기 이전에는 ‘moral hazard’의 음차역이 아직 정착되기 이전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시기에는 ‘모럴 헤저드/모럴 헤저드’와 ‘도덕적 해이’의 두 표현이 모두 급격히

² 표의 수치는 ‘모럴 헤저드’, ‘도덕적 해이’가 각각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와 두 표현이 병기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외환위기 시기에 ‘모럴 헤저드’가 572회, ‘도덕적 해이’가 984회 검색되었다는 것은 이 두 표현이 단독으로 각각 572회와 984회 쓰인 것이 아니며,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경우와 같이 두 표현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된 것임을 밝혀 둔다.

증가하여 '모럴 해저드'와 '모럴 헤저드'를 합하면 635회 사용되었고, '도덕적 해이'는 984회 사용되어 후자의 빈도가 더 높았다. 최근 3년 간에도 두 용어 모두 빈도 높게 사용되었는데, 외환위기 이전에 '윤리결여', '도덕적 위험' 등으로 번역되었던 것이 '도덕적 해이'로 어느 정도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시기에 비해 '모럴 해저드/모럴 헤저드' 대비 '도덕적 해이'의 사용이 훨씬 더 증가했다. 본고에서 참고한 세 개 정부 사이트(지식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위원회)의 사전 중 금융위원회에서는 '모럴 해저드'와 '도덕적 해이'를 동일한 표제어로 설명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럴 해저드'는 검색되지 않았으며, '도덕적 해이'는 표제어는 아니지만 다른 용어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검색되었다.

<Stand-By Arrangement>

아래 예는 음차와 의미번역이 함께 쓰이다가 의미번역이 우세하게 검색된 예 중에서 최근에는 음차역이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이다.

	1994.01.01 ~ 1996.12.31	1997.01.01 ~ 1999.12.31	2009.01.01 ~ 2011.12.31
대기성차관	19	79	65
SBA	0	22	9
스탠바이차관	2	2	2
스탠드바이(협정, 크레딧)	3	26	1

'Stand-by Arrangement'는 IMF가 지원하는 자금 중 미리 정해놓은 한도 이내에 빌려주는 기금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에 IMF로부터 이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 용어는 '대기성차관', '스탠바이차관', '스탠드바이 협정', '스탠드바이 크레딧/협정' 등으로 쓰였다. '대기성차관'은 외환위기 이전에 19회 검색되었는데 러시아 등에 IMF 자금을 공여하는 내용에서 발견되었다.

'스탠바이차관', '스탠드바이(협정, 크레딧)' 등 음차역은 외환위기 이전에 5회 검색되었고 외환위기에는 28회 검색되었으나, 최근 3년에는 3회 검색되는 데에 그쳐서 사용빈도가 크게 줄었다. 즉 Stand-by Arrangement는 최근에 의미번역이 훨씬 빈도 높게 검색되고 음차역은 사용이 크게 감소했다.

2. 음차역과 의미번역이 함께 쓰이다가 최근에는 음차역이 우세하게 검색된 경우

<Default>

	1994.01.01 ~ 1996.12.31	1997.01.01 ~ 1999.12.31	2009.01.01 ~ 2011.12.31
디폴트 ³	2	574	9260/40
채무불이행	104	654	3943
채무상환불이행	0	10	21
채무이행불능	0	4	1

³ 디폴트로 검색되는 용어 중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의미가 아닌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제외하였다. '신용디폴트스' 혹은 '크레딧디폴트스와프, 계산기의 조작이나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명령이나 데이터를 명시적인 지시 또는 기술하는 경우에 프로그램이 초기설정상태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디폴트[기계공학],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어떤 변수의 값이 생략된 경우에 시스템이 미리 준비한 값을 이용하는 암묵값을 말하는 디폴트[산업공학] (<http://semanticweb.kaist.ac.kr/research/korterm/korean/>).

디폴트는 외환위기 이전에 2회 사용되었다. 2회 모두 ‘결계불능(디폴트)’(한국경제 1996.10.1), ‘디폴트(채무이행불능)’(한국경제 1996.7.1)와 같이 음차 이외의 표현과 함께 쓰였다. 위 표와 같이 이 시기에는 ‘디폴트’ 보다는 ‘채무불이행’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외환위기에는 두 단어의 사용 모두 급증하여 ‘디폴트’와 ‘채무불이행’이 각각 574회와 654회 사용되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이들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최근 3년 간은 ‘채무불이행’보다 ‘디폴트’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용어사전에는 디폴트는 표제어로 없지만 채무불이행은 등재되어 있었다.

<Bad bank>

	1994.01.01 ~ 1996.12.31	1997.01.01 ~ 1999.12.31	2009.01.01 ~ 2011.12.31
배드뱅크	0	282	1603
부실자산관리은행	0	2	0
부실채권전담은행	0	16	12
정리신탁공사	4	3	48
정리회수공사	0	0	0

‘Bad bank’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 역할을 한다(2010 신경재용어사전, 더난출판사). 이 용어는 RTC (Resolution Trust Corporation이라는 표제어로 설명되기도 하며, 우리말로는 정리신탁공사 혹은 정리회수공사라고 한다(2010 키워드경제용어사전, 랜덤하우스).

위 표와 같이 배드뱅크는 뉴스기사에서 ‘부실자산관리은행’, ‘부실채권전담은행’, ‘정리신탁공사’, ‘정리회수공사’로도 쓰이고 있다. 배드뱅크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신 ‘정리신탁공사’라는 표현으로 쓰였다. 외환위기 시에는 282회, 최근 3년에는 1,565회 사용되어서 크게 증가하였다.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들 중에서 ‘배드뱅크’가 압도적으로 검색횟수가 높아 일반 사용자들에게 널리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Moratorium>

	1994.01.01 ~ 1996.12.31	1997.01.01 ~ 1999.12.31	2009.01.01 ~ 2011.12.31
모라토리엄 ⁴	3	1839	1,861
모라토리움	3	121	72
지불유예	6	94	466
지급유예	6	36	476

‘모라토리움/모라토리움’은 외환위기 이전의 3년간 18회 사용되었는데, 이 중 15회는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APEC 신규회원국 가입유예(모라토리움) 조치”(서울신문, 96.11.26), “핵실험 모라토리움(유예)”, “스스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모라토리움 형 인간”과 같이 ‘moratorim’의 ‘유예’

⁴ 핵실험을 일시 중단한다는 뜻의 ‘모라토리움’, 회원 가입을 유예한다는 뜻의 ‘모라토리움’ 제외.

혹은 ‘일시적 중지’라는 중심의미가 차용된 경우이다.

외환위기 기간에는 ‘모라토리엄/모라토리움’의 이러한 중심의미가 채무상환을 유예한다는 경제 용어로 사용되면서 검색 횟수가 급증하였다. 이들 음차역은 단독으로, 혹은 ‘지불유예’, ‘지급유예’, ‘대외채무지불유예’, ‘채무상환유예’ 등과 함께 쓰였는데, ‘모라토리엄/모라토리움’ 만큼 빈도 높게 사용된 특정 표현은 없었다. 모라토리엄은 특히 금융감독원의 용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었다.

최근 3년 동안에도 역시 ‘모라토리엄’의 검색횟수가 의미번역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외환위기 때보다 ‘모라토리움’의 검색횟수가 크게 감소하여, 두 용어 중 ‘모라토리엄’의 사용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3. 처음부터 의미번역이 된 경우

<Supplementary Reserve Fund(SRF)>

	1991-01-01 1996-12-31	1997-01-01 1999-12-31	2009-01-01 2011-12-31
보완준비금	0	45	1
SRF	0	147	2
긴급지원자금 ⁵	2	56	0
보충준비금	0	6	0

‘Supplementary Reserve Fund’는 IMF가 금융위기국가에 지원하는 자금 가운데 하나로 일정한도를 넘어 추가로 빌려주는 자금이며, 긴급지원자금 또는 보충준비금이라고도 한다. IMF의 지원 자금은 회원국이 출연한 자금의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한도 이내에 빌려주는 자금(대기성차관)과 이 한도를 초과해 빌려주는 자금(보완준비금)으로 나뉜다(금융위원회 용어사전).

위 표와 같이 ‘Supplementary Reserve Fund’의 번역은 외환위기 이전에 2회만 사용되었으며, 이 때에 음차역은 쓰이지 않았다. 외환위기 시기에는 ‘보완준비금’, 혹은 ‘긴급지원금’이 함께 쓰였으며, SRF라는 약자도 쓰였다. 최근 3년에는 검색 횟수가 크게 줄었으나 이 때도 역시 음차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한국이 1997년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신문을 통해 일반인에게 소개된 경제 용어를 일부 조사한 결과, 처음부터 음차역 없이 의미번역이 쓰인 경우도 있었고, 음차역과 의미번역이 함께 쓰인 용어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최근 3년 간의 검색에서도 음차역과 의미번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음차역과 의미번역 등 여러 개의 용어가 혼용되는 양상은 전문 용어의 표준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표준화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용어가 대응되도록 할 것을 추진한다. 따라서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표현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여러 개의 경쟁용어로 정착된다면 용어 사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 쓰이던 용어에 대해 음차역이 경쟁 용어

⁵ IMF에서 구제금융과 관계 없는 표현은 제외하였다(예: 복지부에 전화로 긴급지원자금 지원에 대해 문의했다.)

로 추가된다면(예: 디폴트) 이 역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Saraireh(2001: 16-17)은 영어-아랍어 기술 용어 번역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의어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개념에 대해 하나의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표준화 정책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혼동을 준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미 아랍어 용어가 있는데 차용어를 쓰는 경우를 경계하면서, 차용어가 사용은 해당 개념에 대해 용어가 정립되기 전까지 사용하되 용어 정립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표준화는 강압적으로 추진한다고 정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용어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표준용어를 정립해 놓고, 사용자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정립 성과는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용어의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동일 개념에 대한 복수 표현 인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이현주, 조동성, 2011:277).

한편, 음차역의 사용은 특히 언론매체에서 더 빈번하게 발견되는 현상일 수 있다. 강현화(2011: 91)⁶는 음차역의 사용 여부에 대해 학술, 교육, 행정, 언론, 일반, 전체로 분류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언론에서 의미번역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52.8%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 조사 전체에서 의미번역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37.5임을 감안할 때 언론에서는 음차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약 음차역이 표준어가 될 때에는 띄어쓰기, 표기법 등 어문규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이현주, 조동성 2011: 257-260). 한 개념에 대해 유사한 음차역 몇 개가 혼용된다면 사용자가 동일한 개념을 지칭인지 혼동이 생겨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 요인이 되므로 어문규정을 지켜서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처음 번역할 때부터 정립해야 하는데 용어의 변경 및 수정은 언어 습관의 변화와 개념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이현주, 조동성 2011: 258).

참고문헌

- 강경화. (2011). 전문 용어의 국어화. *새국어생활*, 12(2), 85-98.
- 국립국어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07).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박창원. (2009). *전문용어 정비 지침*. 서울: 국립국어원.
- 김성원, 김정우. (2011). 전문 용어 번역의 유형과 방법론: 의학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33-52.
- 김한샘. (2011). 전문용어의 정비 현황과 과제. *한말 연구*, 23, 93-120.
- 이현주, 조동성. (2011).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 245-283.
- 국립국어원. (2006).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서울: 국립국어원.
- Munday, J.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Sarairah, M.A. (2001). Inconsistency in technical terminology: A problem for standardization in Arabic. *Babel*, 47(1), 10-21.

<참고한 사진>

⁶ 이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말하는 음차역을 ‘외래어’로, 의미번역을 ‘번역어’로 쓰고 있다.

지식경제부 용어사전: <http://www.mke.go.kr/info/dictionary/dictionary.jsp>

금융감독원 용어사전: http://www.fsc.go.kr/know/wrd_list.jsp

금융위원회 용어사전: http://www.fsc.go.kr/know/wrd_list.jsp

2010 신경제용어사전. 더난출판.

2009 경제신어사전. 매일경제신문사.

2010 키워드경제용어사전. 랜덤하우스.

Translator's Education Background and Translation Readability

Jang, Minho
(Geumgang University)

Jang, Min Ho. (2012). Translator's Education Background and Translation Readability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4(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ranslator's education backgrounds on the readability of CEO greetings translations posted on corporate websites. While most studies on business information readability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and readability, relatively little work has examined effects of CEO-specific characteristics on business information readability. This paper focuses on CEO greetings considering their importance as a business information channel.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readability of CEO greetings translated or approved by CEOs with graduate education and/or overseas education is different from that by CEOs without such backgrounds. Univariate analyses show that readability of greetings on corporate websites by the two groups of CEOs is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overseas education is more likely to influence positively the readability of target-text CEO greetings than is graduate education. Additional tests, however, show that CEOs without overseas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write more readable source-text CEO greetings than do their counterparts who have studied abroad. (160 words)

Keywords: education, readability, greetings, website, entertaining

I. Introdu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ranslator's educational background on translation qualit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es readability levels of translated CEO greetings between two groups of CEOs, each with different educational backgrounds. Education is one of major sociolinguistic factors influencing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use which include age, gender, race, ethnicity, social status and others. Some linguists, for example, have suggested that women and people of higher social status use more standard speech forms than men and people of lower social status (Holmes, 2001). There is also a general notion that better educated people use more standard form of language. These same sociolinguistic factors may influence translation quality in general. However, there has so far been little research on whether translators with different educational background produce translations with different readability level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ovide an insight into that question.

This paper focuses on CEO greetings considering their importance as a business information channel.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readability of CEO greetings translated or approved by CEOs with graduate education

and/or overseas education is different from that by CEOs without such backgrounds.

Univariate analyses show that readability of greetings on corporate web sites by those two groups of CEOs is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overseas education is more likely to influence positively the readability of target-text CEO greetings than does graduate education. Additional tests, however, show that CEOs without overseas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write more readable source-text CEO greetings than do their counterparts who have studied abroad.

This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The next section presents a literature review and establishes the research hypothesis. Section three explains research design. Section four presents empirical analyses and section five summarizes and concludes.

II. Background and hypothesis

Most studies on business information readability focus on the relation between business information and firm characteristics. Among those characteristics, prior research pays most attention to firm's profitability. Sabramanian, Insley, and Balckwell (1993) document the association between firms' profit numbers and business information readability. They find that business reports readability of

more profitable firm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less profitable ones. The rationale behind this finding is that below-than-average-profit firms tend to use longer sentences and more complex wording to conceal the bad news while above-average firms use stronger, more active, and clearer text to emphasize their achievements and impress outside information users. Managers usually employ impression management tactics because a CEO's strong charisma, reputation, and symbolic power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reputation (Cravens, Oliver, and Ramamoorti, 2003). Therefore CEOs have an interest in presenting themselves as competent to outside information users. In this respect, CEO greetings on corporate web sites are among the best channels for CEOs to make themselves known to the public in general. Pollach (2011) examines a sample of CEO profiles from corporate web sites of large North American and European companies in a content-analytic design. The results indicate that impression management is more prevalent in North American CEO profiles. In particular, leadership roles in associations, the CEO's social stance, nominations in the press, and the CEO's involvement in political activities play a bigger role in the construction of CEO competence in North America. Whereas CEO profiles of North American companies show CEOs

as active participants in social, political, and public life, European CEOs are presented as primarily business-focused.

CEO greetings also provides a corpus for research on sociolinguistic factors and translation readability because their format and content are purely at the discretion of the CEO. Therefore, translator-specific characteristics are likely to be reflected by translation readability.

As a research effort on translator gender and readability, Jang (2012a) compares readability levels of CEO greetings by male CEOs and those by female CEOs. He hypothesizes that readability of greetings posted on corporate websites by women CEOs is different from that of men CEOs. The results support his hypothesis by evidence from a sample of 50 male CEO greetings and another 50 female CEO greetings. Specifically, translation readability of women CEOs greetings a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of men CEOs. Jang (2012a) also finds the different readability management practices between the two genders in choosing word length and sentences length, the two determinants of readability index, suggesting that the male and female CEOs take different approaches to communicating online with outside corporate information users.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lator age and readability, Jang (2012b) compares

readability of CEO greetings translations for firms with younger CEOs and for firms with older CEOs. He hypothesizes that readability of greetings posted on corporate web sites by firms with younger CEOs is different from that by firms with older CEOs.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tests show that readability of CEO greetings on corporate websites by younger CEO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older CEOs. However, the average word length (AWL) for CEO greetings by younger CEOs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for older CEOs. As for a possible reason for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EO greetings readability between the younger group and the older group, Jang suggests that CEOs' language use pattern is more status-based rather than age-based. In other words, the CEOs speak the same language as top managers of large business organizations regardless of their varying ages. In the line of Jang's research on sociolinguistic factors and translation readability, this paper focuses on translator's education background as another potential sociolinguistic factor to influence translation readability. Thus,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whether translator's education background influences, whe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readability of their translations. To answer that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establishes the following hypothesis.

Hypothesis: Readability of CEO greetings translations by the two CEO groups, each with different education background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III. Research Design

1. Sample Selection

The sample firms of this study comes from the company listing of the 2012 *KIS-VALUE* (www.kisinfo.co.kr) database. This study selects the first 300 companies from the list. The names of the companies in the list are in the Korean alphabetical order, and so these firms are not likely to have any systematic similarity in CEO characteristics such as CEO's education background and CEO greetings readability. In other word, this sample is independent and random.

As in Jang (2012b), average word length (*AWL*) and average sentence length (*ASL*), the two linguistic variables of the Flesch Reading Ease formula, are obtained by counting the number of sentences and the number of syllables in a 100-word long sample text in the CEO greetings. The sample text in a CEO greetings is a text from the second sentence of the CEO greetings to the sentence which contains the 100th word of the the

CEO greetings text. The reason for not including the first sentence of the CEO greeting is to eliminate a potential formality usually found in greetings. This study counts a series of words as a sentence if they end with a period and are followed by a space as in Jang (2012a). AWL is the number of syllables divided by the number of words in a sample text. ASL is the number of words in a sample text divided by the number of sentences in the sample text.

Of the initial sample of 300 firms this study eliminates 206 firms for which the CEOs' education background both on their final academic degrees and overseas education cannot be confirmed by their corporate web sites or by the NAVER personal profile database. This sample selection procedure yields the final sample of 94 CEO greetings from firms as many.

2. Measurement of Readability

This study measures CEO greetings readability using the Flesch Reading Ease formula. Among several readability index formulas, the Flesch's is the most widely used and has been proven powerful in testing business-text readability (Subramanian et al., 1993). Flesch's readability formula uses only two linguistic variables: average sentence length (ASL) and average word length (AWL). The

rationale behind the Flesch formula is that shorter words and shorter sentences are easier to read. In the Flesch Reading Ease formula below the weight (-84.6) on AWL compares to that (-1.015) on ASL, which means that average word length (AWL) is the much more powerful factor of the two readability determinants.

$$\text{The Flesch Reading Ease} = 206.835 - 84.6 \times \text{AWL} - 1.015 \times \text{ASL}$$

where

AWL = average word length measured by dividing the number of syllables by the number of words in a sample text

ASL = average sentence length measured by dividing the number of words by the number of sentences in a sample text

IV. Empirical analyses

1. Graduate Education and Readability

Table 1 presents the univariate analysis of CEO greetings readability (READABILITY) pooled for each group. Means and medians of READABILITY, AWL (average word length),

ASL (average sentence length), KoAWL (source-text AWL), and KoASL (source-text ASL) are presented for the CEOs with graduate degrees and the CEO without graduate degrees in sections A and B, respectively. Section C present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eans and medians reported in section A and those of section B (=A-B), along with the results of *t*-tests and Wilcoxon two-sample tests for the differences. Thus, the plus sign of the READABILITY difference in section C indicates a greater CEO greetings readability for the CEOs with graduate degrees.

Section A indicates that the CEO with graduate degrees report a mean (median) READABILITY of 48.69 (49.21). As indicated in section B, the CEO without graduate degrees have a mean (median) READABILITY of 48.47 (36.40). Section C indicates that the CEOs with graduate degrees have a mean (median) READABILITY that is 0.22 (12.81) greater than that of the CEO without graduate degrees. Section C indicates the difference i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at $p=0.05$.

AWL and ASL are the two components in the READABILITY calculation. Section A indicates that the CEO with graduate education report a mean (median) AWL of 1.66 (1.65). As indicated in section B, the CEO without graduate degrees have a mean (median) READABILITY of 1.67

(1.71). Section C indicates that the CEOs with graduate degrees have an AWL number that is 0.01 (0.06) smaller than that of the CEOs without graduate degrees and the differences are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at $p=0.05$, both parametrically and nonparametrically.

As for ASL, section A indicates that the CEOs with graduate education report a mean (median) ASL of 10.52 (9.74). As indicated in section B, the CEOs without graduate degrees have a mean (median) ASL of 10.27 (10.00). Section C indicates that the CEOs with graduate degrees have an ASL number that is 0.25 (0.26) greater (less) than that of the CEOs without graduate degrees. The ASL differences both in the mean and the median between the two groups are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01$, both parametrically and nonparametrically.

2. Overseas Education and Readability

Table 2 presents the univariate analyses of CEO greetings readability (READABILITY) pooled for each group. Means and medians of READABILITY, AWL (average word length), ASL (average sentence length), KoAWL (source-text average word length), and KoASL (source-text average word length) are presented

for the CEOs with overseas education and the CEO without overseas education in sections A and B, respectively. Section C present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eans and medians reported in section A and those of section B (=A-B), along with the results of *t*-tests and Wilcoxon two-sample tests for the differences. A minus sign of the READABILITY difference in section C indicates a greater CEO greetings readability for the CEOs with overseas education.

Section A indicates that CEOs without overseas education report a mean (median) READABILITY of 47.96 (48.47). As indicated in section B, the CEO with overseas education have a mean (median) READABILITY of 51.02 (51.63). Section C indicates that the CEOs with overseas education have a mean (median) READABILITY that is 3.05 (3.16) greater than do the CEOs without overseas education. Section C, however, indicates that the differe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As for AWL, one of the two components in the READABILITY calculation, section A indicates that the CEO without overseas education report a mean (median) AWL of 1.67 (1.68). As indicated in section B, the CEO with graduate degrees have a mean (median) READABILITY of 1.62 (1.64). Section C indicates that the CEOs with overseas education

have the AWL mean (median) that is 0.05 (0.04) smaller than do the CEOs without overseas education and the differences are not big enough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both parametrically and nonparametrically.

As for ASL, the other of the two components in the READABILITY calculation, section A indicates that the CEOs without overseas education report a mean (median) ASL of 17.25 (16.37). As indicated in section B, the CEOs with graduate degrees have a mean (median) ASL of 17.70 (16.87). Section C indicates that the CEOs with overseas education have the ASL mean (median) that is 0.44 (0.50) greater than do the CEOs without overseas education. The ASL differences both in the mean and the median between the two groups are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01$, both parametrically and nonparametric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greater READABILITY for CEOs with overseas education is attributable to the smaller AWL.

Additionally, this study compares patterns of AWL and ASL between the source text (KoAWL and KoASL) and target text (AWL and ASL) to examine potential differences in AWL and/or ASL patterns between the source and the target texts. Comparison results are reported in table 2. CEOs with overseas education use shorter words and longer

sentences than do their counterparts without overseas education. As for KoAWL, however, the opposite is true: they use longer words. This means that CEOs with overseas education are better at improving target text readability than those without while the CEOs without overseas education are better at improving source text readability than those with overseas education.

TABLE 1. Univariate analyses for a sample of 59 CEOs with graduate education and 35 CEOs without graduate education for Year 2012

	Section A CEOs with graduate education (<i>n</i> = 59)			Section B CEOs without graduate education (<i>n</i> = 35)			Section C Tests of null† (<i>A</i> = <i>B</i>)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Mean (<i>t</i> - <i>statistic</i>)	Median	Median (<i>Z</i> - <i>statistic</i>)
	READABILITY (two-tailed <i>p</i> -value) †	48.69	49.21	12.36	48.47	36.40	9.38	0.22 (0.09)	12.81 (0.29)
AWL (two-tailed <i>p</i> -value) †	1.66	1.65	0.11	1.67	1.71	0.11	-0.01 (0.55)	-0.06 (-1.15)	
ASL (two-tailed <i>p</i> -value) †	17.68	17.08	6.74	16.80	17.71	5.41	0.89 (0.66)	-0.63 (0.60)	
KoAWL (two-tailed <i>p</i> -value) †	3.64	3.59	0.17	3.62	3.61	0.18	0.02 (0.82)	-0.02 (0.39)	
KoASL (two-tailed <i>p</i> -value) †	10.52	9.74	3.01	10.27	10.00	2.56	0.25 (0.42)	-0.26 (0.03)	

Notes:

READABILITY = *Flesch Reading Ease* score of target text
Flesch Reading Ease = $206.835 - 84.6 \times \text{AWL} - 1.015 \times \text{ASL}$

AWL = average word length of English target text

ASL = average sentence length of English target text

KoAWL = average word length of Korean source text

KoASL = average sentence length of Korean source text

† In section C, *t*-statistics for the means are from *t*-tests and *Z*-statistics for the medians are from Wilcoxon two-sample tests.

TABLE 2. Univariate analyses for a sample of 74 CEOs without overseas education and 20 CEOs with overseas education for Year 2012

	Section A CEOs without overseas education (<i>n</i> = 74)			Section B CEOs with overseas education (<i>n</i> = 20)			Section C Tests of null† (<i>A</i> = <i>B</i>)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Mean (<i>t</i> -statistic)	Median (<i>Z</i> -statistic)	
READABILITY	47.96	48.47	11.08	51.02	51.63	12.00	-3.05	-3.16	
(two-tailed <i>p</i> -value) †							(-1.07)	(-1.03)	
AWL	1.67	1.68	0.11	1.62	1.64	0.11	0.05	0.04	
(two-tailed <i>p</i> -value) †							(1.46)	(1.43)	
ASL	17.25	16.37	5.64	17.70	16.87	8.33	-0.44	-0.50	
(two-tailed <i>p</i> -value) †							(-0.28)	(-0.17)	
KoAWL	3.62	3.58	0.17	3.66	3.60	0.17	-0.04	-0.02	
(two-tailed <i>p</i> -value) †							(-0.95)	(-1.15)	
KoASL	10.42	9.56	2.90	10.42	9.90	2.66	0.00	-0.34	
(two-tailed <i>p</i> -value) †							(0.01)	(-0.18)	

Notes:

READABILITY = *Flesch Reading Ease* score of target text
Flesch Reading Ease = $206.835 - 84.6 \times \text{AWL} - 1.015 \times \text{ASL}$

AWL = average word length of English target text

ASL = average sentence length of English target text

KoAWL = average word length of Korean source text

KoASL = average sentence length of Korean source text

† In section C, *t*-statistics for the means are from *t*-tests and *Z*-statistics for the medians are from Wilcoxon two-sample tests.

v. Summary and conclus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EO education background on the readability of CEO greetings translations posted on corporate websites. While most studies on corporate business information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and readability, relatively little work has examined effects of CEO-specific characteristics on business information readability. This paper focuses on CEO greetings as a specific channel of business information.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readability of translated CEO greetings by CEOs with graduate education and/or overseas education is different from that by CEOs without such backgrounds.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s of CEO greetings from 94 firms. CEO profiles are obtained from the *NAVER* personal profile database. CEO greetings readability is measured using the Flesch Reading Ease formula.

Univariate analyses show that readability of greetings on corporate web sites by the two groups of CEOs, each with different education backgrounds is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overseas education ($t=1.07$, $Z=1.03$) is more likely to improve the readability of target-text CEO greetings than is graduate education ($t=0.09$, $Z=0.29$). Also, additional tests show

that CEOs without overseas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improve greetings readability than do their counterparts who have studied abroad.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verseas experience may have stronger influence on translation readability than does higher academic degrees as evidenced by both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tests. Secondly, there may be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source-text readability and target-text readability of CEO greetings. If so, firms need to take a more balanced approach to readability management and minimize a possible linguistic interference between two languages.

A major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extent to which a CEO is involved in the translating process is not observable even though this paper assumes that CEOs are, at least partially, involved in translating by putting their signatures on the CEO greetings translations to approve them.

The sample size difference between the comparison group and control group may also be another limitation of this study.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uses nonparametric Wilcoxon two-sample tests. Future research will reach a more generalized conclusion on CEO greetings readability by using a much larger sample than this study.

References

- Cravens, K., Oliver, E. G., & Ramamoorti, S. (2003). The reputation index: measuring and managing corporate reputation. *European Management Journal, 21*, 201-212.
- Daniel, W. 1991. *Applied nonparametric statistics*. Boston. PWS-KENT Publishing Company.
- Flesch, R. (1948). A new readability yardstic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2*.
- Holmes, J. 2001.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Essex, U.K. Pearson Education Limited. 150-174.
- Jang, M. (2012a). CEO gender and readability of CEO greetings translation. *working paper*.
- Jang, M. (2012b). Translator age and Translation Readability. *working paper*.
- Keller, G. (2009). *Statistics for management and economics, 8th edition*; CENGAGE Learning: USA.
- Pollach, I. & Kerbler, E. (2011). Appearing competent: a study of impression management in U.S. and European CEO profiles,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48(4)*, 355-372.
- Subramanian, R., Insley, R.G. & Blackwell, R.D. (1993). Performance and readability: a comparison of annual reports of profitable and unprofitable corpora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s, 30 (1)*.

소속: 금강대학교 통상행정학부
주소: 충남 논산시 상월면 14-9 금강대학교
Tel: 82-041-731-3446
이메일: now@ggu.ac.kr

Affiliate: Geumgang University
Address: Sangwol-myon, Nonsan-si, Chungnam Korea.
Tel: 82-041-731-3446
E-Mail: now@ggu.ac.kr

논문투고일: 2012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12년 월 일

Proposing Corpus-based Approach to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QA)

번역 품질 평가에 있어
코퍼스 중심 접근법 제안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yunjoo Park

한국외국어대학교 박현주

TQA

- TQA is a type of evaluation.
- M. Scriven (2007:1)
“Evaluation is taken to mean the determination of merit, worth, or significance”
- Types of TQA
 - Quantitative vs. qualitative
 - Diagnostic, formative or summative
- M. Williams (2009)
“ We are essentially trying to determine degrees of *goodness* when we perform TQA.”

Criteria of “Goodness” (Williams, 1989 & 2009)

- **Validity**

- The extent to which an evaluation measures what it is designed to measure such as translation skills
- TQA validity is the extent to which the translation samples evaluated are representative of the translated texts

- **Reliability**

- The extent to which an evaluation produces the same results when administered repeatedly to the same population under the same conditions
- Quality requirements clearly defined ... with consistency and ample justification

Translation Evaluation in Different Schools of Thought (1)

1.1 Mentalist views

- Subjective and intuitive evaluation
- Translation as an individual creative act depending exclusively on subjective interpretation, artistic-literary intuitions and interpretive skills and knowledge
- Relative stance is inappropriate for making argued statements about when, how and why a translation is good. (House, 2001)

Translation Evaluation in Different Schools of Thought (2)

1.2 Response-based approaches

1.2.1 Behaviorist views

- Search for more “scientific” way
- Nida (1964)
 - Readers’ reactions to a translation as the main yardstick for assessing a translation’s quality
 - “Equivalence of response”
 - Equal “informativeness” and “intelligibility”

Translation Evaluation in Different Schools of Thought (3)

1.2.2 Functionalistic, “Skopos”-related approach

- Translation is intentional, interlingual communicative action (Reiss 2000)
- “Skopos” or purpose of a translation is of overriding importance in judging a translation’s quality. (Reiss and Vermeer 1988:4)
- Nord (1992 & 1991): **Scopostheorie model**
 - “Meaning is assigned to a text by the recipient in light of given function” (Nord 1992: 93)
 - Translation brief

Translation Evaluation in Different Schools of Thought (4)

1.3 Text and discourse based approach

1.3.1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 Toury (1995)
 - A translation is evaluated predominantly in terms of its forms and functions inside the system of the receiving culture and literature.
- Focus on actual translations and textual phenomenon
- Contextualization at micro-level and macro-level
- Inclusion of both “longitudinal” and synchronic systemic perspective (polysystemic relations)

Translation Evaluation in Different Schools of Thought (5)

1.3.2 Post-modernist and deconstructionist thinking

- Venuti (1995)
 - Psycho-philosophical and socio-political stance in an attempt to unmask unequal power relations
- Politically pertinent statemen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 Interests of powerful individuals and groups; choosing translation texts and adopting strategies of re-textualization

Translation Evaluation in Different Schools of Thought (6)

1.3.3 Linguistically-oriented approaches

- Pioneering linguistic work in translation evaluation
- Translation evaluated in terms of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Wilss, 1977)
- Widened scope of TS to linguistics, pragmatics, sociolinguistics, stylistics and discourse analysis

Existing TQA Models (1)

1. Models with a quantitative dimension

1.1 Canadian Language Quality Measurement System (Sical)

- Developed by Canadian Translation Bureau
- Quantification of errors
- Transfer vs. language errors/major vs. minor errors
- Focus on the word and the sentence, not on the text as a whole

1.2 Council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Canada (CTIC)

- Translator certification examination
- Quantitative value for each type of error

Existing TQA Models (2)

1.3 TQA using discourse analysis; Bensoussan and Rosenhouse (1990)

- Surface equivalence, semantic equivalence and pragmatic equivalence
- Frequency tables for each category of error

1.4 Textological TQA; Larose (1987 & 1994)

- Multilevel grid; microstructure, macrostructure, superstructure, and “peritextual”
- Macrotextual and multicriteria-referenced
- Supports reductionist approach based on most relevant parameters and criteria

Existing TQA Models (3)

2. Non-quantitative mod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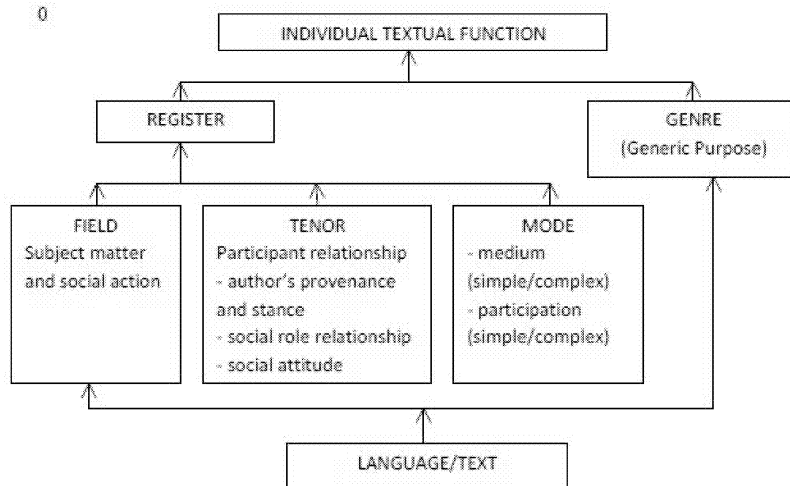
2.1 Scopostheorie Model

- Function and intention (skopos) of the target text in the target culture
- Parameter-specific

2.2 Functional-Pragmatic Model; House (1977 & 1997)

- Hallidayan systemic-functional theory
- Prague school ideas, speech act theory, pragmatics, discourse analysis
- Comparison of ST and TT on three different levels; Language/Text, Register and Genre
- Overt vs. Cover translation

Existing TQA Models (4)



Source: Julian House's Model in Christoffer Gehrman 2011

Existing TQA Models (5)

2.3 Argumentation-centered TQA Model; Williams (2001)

- Argument macrostructure
- Norm-based
- Quantitative + Qualitative
- Nonempirical definition of major/minor errors
- Full-text TQA

Key Parameters in TQA

- **Al-Qinai (2000)**; based on Newmark (1988), Hatim and Mason (1990), Steiner (1994), and House (1981, 1997)
 - 1) Textual topology
 - 2) Formal correspondence
 - 3) Coherence of thematic structure
 - 4) Cohesion
 - 5) Text-pragmatic (dynamic) equivalence
 - 6) Lexical properties (register)
 - 7) Grammatical/syntactic equivalence

Corpus Linguistics (1)

- **Laviosa-Braithwaite (1996)**

“Corpus linguistics is a branch of linguistics which involves the analysis of large machine-readable corpora of running text, using a variety of software tools designed specifically for textual analysis.”
- **Biber et al (1994)**
 - Advantages of the use of corpora; 1) large empirical database of natural discourse, 2) analyses of a scope and reliability

Corpus Linguistics (2)

- **Corpus processing techniques**
 - Type-token ratio
 - Basic statistics; number of sentences and paragraphs, average word and sentence length
 - Frequency lists
 - Concordancing ; language usage in context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CTS (1)

- **Kruger (2002)**
 - “Universals” of translation (Baker, 1993)
 - 1) Explicitation
 - 2) Simplification
 - 3) Textual conventionality
 - 4) A tendency to avoid repetition present in source text
 - 5) A tendency to exaggerate features of the target language
 - 6) Specific distribution of lexical items in translated texts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CTS (2)

- **Tymoczko (1998)**
 - Focus on both process and products of translation
 - Smaller details of the translated texts + largest cultural pattern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o the texts

- **Laviosa-Braithwaite (1996b)**
 - Many different aspects of the translational phenomenon
 - Unveiling both the universal and the specific features of translation
 - Inductive and deductive research
 - Product- and process-oriented

Areas of CTS (1)

- **Lexical/syntactic research**
 - 1) Lexical density
 - 2) Token/type ratio
 - 3) Frequency lists

- **Translation universals**
 - 1) Explicitation; Blum-Kulka (1986), Olohan & Baker (2002)
 - 2) Simplification; Baker (1996), Delabastita (1993), Sara Laviosa (1996, 1998, 2001)
 - 3) Normalisation; Baker (1996),

Areas of CTS (2)

- Analyzing the **style of literary translators**; Baker (2000)
- Translation equivalence for **publishing multilingual dictionaries**
 - Dunning (1993), Daga et al. (2002), Gaussier and Lange (1995), Tubert(1998), Chodkiewicz et al. (2002)

CTS in Korea

-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translated texts as a **translation phenomenon** on the basis of **empirical data** (Jeong 2004, 2006)
- Shifts in referential **cohesive device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Kirk, 2005)
- Action-based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rpora** to the Korean-into-English **translation classroom** (Nam (2007)

Application of CTS to TQA (1)

- **Key advantages of CTS**

- 1) **Empirical analyses** of larger bodies of authentic text
- 2) **Complementary to traditional approaches**
(Bowker, 2001)
- 3) Shift to **descriptive approach**
- 4) Ensure **inter-subjectivity**
- 5) Focus both on **process and product of translation**
- 6) From text-based to **context-based**
- 7) **Flexibility/adaptability/openness**
- 8) **Similarity + particularity** (Tymoczko 1998)

Application of CTS to TQA (2)

- **Bowker (2001)**

- Corpus-based translation evaluation in **translator training**
- Special purpose corpus
- Evaluation Corpus
 - 1) Comparable source corpus
 - 2) Quality corpus
 - 3) Quantity corpus
 - 4) Inappropriate corpus
- Potential of integrating evaluation corpus into the teaching process

Application of CTS to TQA (3)

- **Baker (2000)**
 - **Fictional subcorpus of the TEC**
 - Examine aspects of linguistic patterning in the works of British literary translators
 - ✓ Peter Bush (5 translated novels or a total of 296,146 words)
 - ✓ Peter Clark (3 translated novels or a total of 173,932 words)
 - Individual literary translators use **distinctive styles** of their own
 - ✓ Specific lexical items
 - ✓ Syntactic patterns
 - ✓ Cohesive devices
 - ✓ Style of punctuation.

Application of CTS to TQA (4)

- **Laviosa (2000)**
 - Use TEC for **lexicogrammatical analysis** of five **semantically related words** in translated **newspaper** articles (*The Guardian* and *The European*)
 - ✓ Europe, European, European Union, Union, EU
 - **Ideological impact of translated texts** in target-oriented environment

Application of CTS to TQA (5)

- **Freire (2009); Corpus-based approach within J. House's TQA model**
 - Merging **macro-analytical framework** with a **lexical and syntactic corpus-based approach** to evaluate translation quality
 - Text: translation of a general introduction on the Brazil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rom Portuguese into English
 - Lexical unit, semantic, grammatical and textual association
 - Insights into translation assessment
 - 1) Need for establishing criteria from the very beginning
 - 2) Translation evaluators, not "neutral judges," rely on some set of values

Proposing Corpus-based Approach to Evaluating Korean-into-English Translation

- Increasing demand for quality translation into English driven by globalization and cultural exchange (e.g. "Please Look After Mom")
- TQA for Korean-into-English translation of different genres
 - Newspaper articles
 - Literature works
- **Linguistic analysis** providing grounds for arguing an **evaluative judgment**
- Judgment based on **intersubjectively verifiable set of procedures** in translation criticism (**House 2001**)



THANK YOU!

한국문학 번역과 처방적 번역규범의 문제

윤후남
경희대학교

차 례

1. 서론
2. 투리와 체스터만의 번역규범
3. 번역규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4. 한국문학번역의 장에서 작동하는 처방적 규범
5. 한국문학번역과 처방적 규범의 문제점
6. 결론

1. 서론

한국문학의 해외소개의 역사는 서구문학의 국내 소개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1889년 미국에서 출판된 구비문학작품집인 『Korean Tales』가 그 효시이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에 망명 중이던 홍종우가 로니(J.H. Rosny)와 함께 춘향전을 『Le Printemps Parfumé』이란 제목으로 1892년에 번역 출판한 것이 처음이고, 독일에서는 한국전래 동화와 전설집인 『Korea-Märchen und Legenden』이 1893년에 출판된 것이 처음이다 (김종길, 1997: 17; 유럽문화정보센터, 2004:v). 그러나 저자를 알 수 없는 구비문학과 구분되는 본격적인 문학작품의 번역은 한국에 주재했던 영국인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이 김만중의 『구운몽』을 1922년 영국에서 『The Cloud Dream of Nine』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것이 그 효시라고 보는 것이 통례이다.¹⁾ 이와 같은 역사적 사례를 기점으로 보면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는 120년을 헤아린다. 그러나 서구문학의 국내소개가 1920년대를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은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고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번역이 추진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민간 문화재단인 대산문화재단이, 2001년부터는 한국문학번역원²⁾이 참여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번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의 역사는 4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의 성과로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 출판시장에서 독자들의 호응을 얻어 성공을 거둔

1) 김종길(1997:13-17)은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우발적인 것에 불과하며, 한국문학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의 기원을 1948년으로 잡고 있다. 이 해는 고려대 이인수 교수(1916-1950)가 고려대에서 <영작문 연습>이란 강의를 통해 이상의 <날개> 등 한국문학 번역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조국의 해방을 맞아 우리 문학 내지 문화를 세계화하려는 희망에 부푼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금고가 통합되어 한국문학번역원이 2001년 출범하였다.

사례가 있지만, ‘첫눈’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출발점에 방점을 찍은 것에 불과하며,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한국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달성은 아직 요원한 듯하다. 한국문학은 여전히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낯선 문학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의 척도로 거론되는 노벨문학상이 매년 발표될 때마다 늘 ‘부실한’ 번역이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그저 ‘부실한’ 번역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그쳤고 번역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부족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번역의 문제 중 하나로서 번역의 실천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 처방적 규범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번역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특히 한국문학의 해외로 향한 대표적인 창구라 할 수 있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처방적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첫째, 투리(Toury)와 체스터만(Chesterman)의 규범이론을 살펴보고 그들이론을 중심으로 규범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factors)을 분석해본다. 둘째, 한국문학번역원이 지향하고 있는 규범과 이러한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규범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규범 설정에 있어 보완해야 할 요소들을 고찰한다.

2. 투리와 체스터만의 번역규범

번역학 분야에서 규범(norms)에 관한 개념은 1970년대 말 이스라엘 학자인 기디언 투리(Gideon Toury)가 도입한 이래 특정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번역활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로 사용되어왔다(Baker, 1980: 163). 투리에 따르면 규범이란 특정한 사회문화적 환경 하의 번역행위에서 나타나는 규칙적인 패턴(regularities)이다. 이러한 규범은 간주관적이며 규정(rule)과는 달리 구속력은 없지만 번역행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르페브르 역시 개인이 선택에 따라 이러한 제약을 거스를 수 있기 이러한 제약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어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한다(Hermans, 2004: 128 재인용).

그러므로 번역행위는 출발어 텍스트나 번역대상이 되는 언어와 텍스트 전통간의 구조적 차이, 또는 중재자로서의 번역가의 인지 가능성과 한계를 넘어서서 사회문화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번역행위의 사회문화적 연관성 때문에 번역 환경이 달라지면 번역전략 또한 달라지고 번역생산물도 달라지게 된다(Toury, 1995: 54). 즉, 번역규범은 번역사가 여러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재역할을 한다(Shuttleworth & Cowie, 1997: 54).

투리는(1995: 56-61)는 번역규범을 초기규범(initial norm), 예비규범(preliminary norm), 운용규범(operational norm),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초기규범은 출발어 텍스트에 구현된 규범, 즉 출발어(source language)와 출발어문화권의 규범을 반영하는 출발어 텍스트 상의 규범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도착어 문화권과 도착어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출발어 문화권의 규범을 준수할 경우 번역은 출발어 텍스트에 대해 적합성(adequacy)를 갖는 방향으로 번역전략이 선택되고, 도착어 문화권의 규범을 준수할 경우에는 수용문화권에서 번역결과물에 대한 용인성(acceptability)을 높일 수 있도록 번역전략이 선택된다. 즉, 번역결과물에 있어서 적합성을 추구할 경우 이국화(foreignization) 번역전략이 주축을 이루고, 용인

성을 추구할 경우에는 자국화(domestication) 전략이 주축이 된다.

예비규범은 번역방침(translation policy)과 번역의 직접성에 관한 규범이다. 번역방침이란 번역의 방향과 계획으로서, 어떤 유형의 텍스트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유형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어떤 텍스트를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저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언어로 된 텍스트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포함된다. 번역의 직접성은 번역에 있어서 원본의 매개 유무와 관련된 규범이다. 즉 원본에서 직접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중역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는 번역시 원본의 매개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가의 여부에 관련된 규범이다. 한국의 경우, 근대화 초기에는 일본어를 매개로 하여 중역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중역이 규범으로 작동했지만, 20, 30년대 해외유학파의 국내유입으로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지식인층이 늘어나 직접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규범은 점차 미약해졌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투리가 말하는 운용규범이란 번역실천에 있어서 번역전략을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규범들이다. 이는 모체규범(matricial norm)과 텍스트언어규범(textual-linguistic norm)으로 구분되는데, 모체규범은 출발어 텍스트의 내용을 빠짐없이 번역할 것인지, 대대적인 생략 등을 통해 텍스트의 구조에 변화를 줄 것인지 등, 텍스트의 전체적인 틀에 관한 규범이며, 텍스트 언어 규범은 도착어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의 내용을 선택하거나 특정 내용을 대체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이다. 예를 들어, 도착어 문화권의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인해 용인되지 않는 경우,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투리는 텍스트의 선정에서부터 실제 번역시 이루어지는 번역전략에 이르기까지 번역과정을 중심으로 규범의 문제를 정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체스터만(1997: 64-69; 이상원, 51-53 재인용)은 번역을 생산하는 번역가와 번역결과물을 소비하는 독자라는 번역의 주체들을 중심으로 번역규범을 정의한다. 그는 번역규범을 기대규범(expectancy norm)과 직업인 규범(professional norm)으로 나눈다. 기대규범이란 도착어 문화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가정이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서 (Shuttleworth & Cowie, 1997: 54), 무엇이 옳고 적절한 번역인지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독자들의 기대는 번역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시적 (over) 번역을 선호하는 쪽과 도착어 문화권에서 생산된 텍스트처럼 자연스럽게 익히는, 은밀한(covert) 번역을 선호하는 쪽으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규범은 도착어 문화권의 번역전통, 도착어 문화권에 존재하는 병렬 텍스트, 경제적 요소나 이데올로기적 요소, 권력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직업인 규범은 책무규범(accountability norm), 소통 규범(communication norm), 관계 규범(relation norm)으로 이루어진다. 책무규범은 윤리적 측면의 규범이고, 소통규범은 독자 등 번역과정에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최적화하는 사회적 측면의 문제를 말하며, 관계규범은 출발어 텍스트와 도착어 텍스트 간의 관련성을 다루는 언어적 측면의 규범이다.

투리와 체스터만이 정의하는 이러한 규범들은 법이나 규정처럼 가시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번역된 텍스트나 텍스트 외적인 진술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투리(1995: 65)에 따르면, 텍스트 내에서 구현되는 규범은 실제 번역된 텍스트들을 통해 드러나는 일정한 패턴을 말하고, 텍스트 외적 요소에서 나타나는 규범은 처방적 번역 이론과 같은 비평문이나 이론에 가까운 진술문, 번역가, 출판인, 편집인, 또는 번역행위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기술한 진술문, 개별 번역물이나 번역가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투리와 체스터만의 번역규범은 기술적(descriptive)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번역규범들은 처방적(prescriptive)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기술적 규범이란 실제 번역된 텍스트 속에서 번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규범이라면, 처방적 규범이란 번역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진술문으로, 번역을 둘러싼 담론 속에 표출된 번역 규범이다. 투리(1995: 55)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처방적 규범은 실제 적용되고 있는 규범과는 상이할 수 있다. 처방적 규범은 한편으로는 규범이 존재하고 있고 규범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 행위를 제어하고자 하는 바람이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투리는 처방적 규범은 편향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 점을 가감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범들이 문학번역에서 작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문학번역의 고유한 기능은 주제전달, 관점과 문체 전달, 문화의 차이 전달, 도착어 문학에 새로운 문학형식을 소개, 새로운 언어적 형태를 도착어 문화권의 언어에 소개, 번역을 통한 원문의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 도착어 문화권의 문학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등이다 (Roberts, 1992: 8). 문학번역은 마땅히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시대마다 문화권마다 서로 상이한 규범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문학번역의 기능이 이러한 요소들에 한정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이한 규범들이 작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3. 번역규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번역규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는 도착어 문화권의 문학 폴리시스템, 병렬텍스트, 독자, 번역전통, 이데올로기, 권력관계, 경제적 요소, 문화의 친숙도(familiarity)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번역규범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첫째, 도착어 문화권의 문학 폴리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번역의 적극적 개입(interference)³⁾ 여부가 영향을 받으므로 번역규범이 달라질 수 있다.

이븐 조하 (Even-Zohar)에 따르면, 번역문학이 도착어권의 문학 폴리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번역이 도착어권 문학폴리시스템에서 중심부를 차지할 때이다. 즉, 1) 문학폴리시스템이 아직 확고하지 않을 경우, 즉 초기단계로서 아직 구축단계에 있는 경우, 2) 도착어권 내에서 특정한 문학 형태가 전체적인 문학의 장(field) 내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미약할 때, 3) 도착어권의 문학이 전환기이거나 위기 상태이거나, 또는 문학적 공백이 있을 경우이다 (1990: 47).

이러한 경우 번역은 도착어 문화권의 문화 레퍼토리(culture repertoire)⁴⁾를 구축하는데

3) 이븐 조하(Even-Zohar, 1990: 54)에 따르면 번역은 “개입”의 한 형태이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개입이란 출발어 문학과 도착어 문학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관계의 형태에 따라 출발어 문학이 도착어 문학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차용의 원천이 될 수 있다.

4) 여기서 문화 레퍼토리란 “한 집단이나 그 집단의 일원들에 의해 이용되는 선택들의 총합”을 말한다 (Even-Zohar, 1997: 355).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사실 이븐 조하가 지적하듯이 번역은 항상 레퍼토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인식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1997: 357-58). 번역이 레퍼토리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는 번역규범 또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동한다. 이러한 경우 번역텍스트는 도착어 문화권내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번역전략은 출발어 텍스트의 원형을 제시하도록 선택된다. 이븐 조하가 지적하듯이, 이 경우 번역은 적합성의 측면에서 출발어 텍스트에 가깝도록 이루어진다(2004: 203). 이러한 경우로서 한국 근대화 초기의 서구문학 번역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당시에 한국은 근대문학의 수립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구문학 번역을 통해 문학 레퍼토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서구문학 텍스트를 교과서로 인식하고 가능한 한 원본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적합성 규범이 적용되었다.

다음으로는 병렬텍스트의 유무가 규범의 영향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도착어 문화권의 문학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장르나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장르가 번역될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번역은 도착어 문화권에서 지배적인 문학형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나 라틴문학의 서사시에서는 6보격(hexameter)이 규범이었는데, 이러한 6보격이 영국문화권으로 번역되면서 영국시에서 지배적이었던 약강격의 운율(iambic meter)로 번역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1697년에 존 드라이든(John Dryden)이 번역한 『베르길리우스 작품집 (The Works of Virgil)』이라든지, 1715-26에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가 번역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그 예이다.

독자적 요소 또한 번역규범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체스터만의 기대규범의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도착어권의 독자들은 번역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특정한 견해나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번역이 자연스럽게 익히는 쪽을 원하는 독자라면 번역규범이 용인성 쪽으로 기울 것이고, 모국어텍스트로서는 생경하지만 번역 텍스트임이 분명한 번역을 원하는 독자라면 번역규범이 적합성 쪽으로 기울 것이다. 또한 독자의 기대는 윤리규범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번역이 독자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독자들의 비난은 번역가의 윤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전통 또한 규범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적으로 중역을 허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번역의 직접성 규범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국화번역이 전통인지, 또는 자국화번역이 전통인지에 따라 투리가 말하는 초기규범이 정해질 수 있다.

유럽의 전통에서는 번역이 다른 언어로 된 작가들이 성취한 예술적 업적을 억압하고 유럽문화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Bassnett and Trivedi, 1999: 4-6). 그러므로 번역이 적극적으로 도착어 문화권의 문학에 개입하는 경우에 통용되는 규범과는 전혀 다른 규범이 통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번역가가 원작을 마음대로 다시쓰기(rewriting)를 하는 것이 통례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페르시아 시인 오마 카이얌의 시를 번역한 영국시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Edward FitzGerald)를 들 수 있다. 스스로도 “변형작품(transmogrification)”이라고 말한, 그가 번역한 『The Rubáiyát of Omar Khayyám』은 원작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영시로서 영국 전통에 남아 있는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 시를 번역한 또다른 번역가인 에드워드 코웰(Edward B. Cowell)과 주고받은 서신 내용⁵⁾을 보면 이러한 우월의식을 엿볼 수 있다.

5) 서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My translation will interest you from its form, and also in many respects in its detail: very un-literal as it is. Many quatrains are mashed together: and something lost, I doubt,

미국의 경우, 번역전통은 베누티(Venuti, 1995)가 지적하듯이, 17세기 이래로 현재까지 유창성(flucy)에 중점을 둔 번역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일본은 유창성보다는 번역투가 느껴지는 번역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은밀한 번역보다는 명시적 번역이 기대규범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데올로기의 요소는 규범의 거의 모든 층위에서 작동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번역이 다시쓰기의 중요한 형태이고(Lefevre, 1992),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Bassnett and Lefevre, 1990) 번역과정이나 행위를 제어하는 규범에 이데올로기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피츠제럴드의 루바이야트 번역의 경우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보면, 피츠제럴드는 페르시아인들이 빅토리아 시대 영국인들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메로스나 베르길리우스를 번역했다라면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방식으로 다시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Lefevre, 1992: 8). 이데올로기는 지배문화가 피지배 문화권의 텍스트를 번역할 때도 작용하지만, 피지배 문화가 지배 문화권의 텍스트를 번역할 때도 작용한다. 크비에친스키(Kwieciński, 1998)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저항이나 문화중속을 막기 위한 전략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개입의 예는 한국 근대연극의 장에서 이루어진 아일랜드극의 번역과정을 통해서도 고찰할 수 있다(Yun, 2010).

권력관계 또한 규범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번역에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경우는 번역을 통한 문화의 약탈(looting)이나 문화의 전유(appropriations)의 경우에 볼 수 있다. 로마제국에 있어서 번역은 자국문화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다른 문화권에서 새로운 내용을 약탈, 흡수하는 것을 의미했다. 즉, 로마인들에게 문학이나 철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로마문화의 심미적 차원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그리스 문화로부터 약탈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번역에 있어서 원문의 어휘나 문체를 전달하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었다(Schulte & Biguenet, 1992: 2).

식민제국의 경우 지배문화가 피지배문화의 텍스트를 번역할 때 전유를 통해 오리엔탈리즘을 양산한 경우 또한 권력관계가 번역규범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니란자나(Niranjana)는 실천(practice)으로서의 번역은 피식민자들을 표상(representation)할 때 식민주의 하에서 작동하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Niranjana 1992: 3).

경제적 요소 또한 규범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등의 문제와 결부될 수도 있다. 전후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반대중지향적인 번역전략이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를 경제적 요소와 결부시킬 수 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에서는 전시산업과 군대에 노동계급의 참여가 필요했고 이러한 노동계급은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전쟁을 끝나자 영국에서는 노동계급의 복지위상이 국가적 이슈로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계급은 전후에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생활이 안정되었고, 경제적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그들의 잠재적 구매력과 경제적 위상 또한 높아졌다. 50년대 중반 이후 페이퍼백 소설 출간이 확장된 것

of Omar's simplicity, which is so much a virtue in him" (letter to E. B. Cowell, 9/3/58).
"I suppose very few People have ever taken such Pains in Translation as I have: though certainly not to be literal. But at all Cost, a Thing must live: with a transfusion of one's own worse Life if one can't retain the Original's better. Better a live Sparrow than a stuffed Eagle" (letter to E. B. Cowell, 4/27/59).

또한 이러한 잠재적 독자층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번역에 있어서의 대중지향적인 번역전략 역시 경제적 요소와 연관지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출발어 문화에 친숙도(familiarity) 역시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때로는 상호작용하에, 때로는 충돌하면서, 문화권마다 다른 번역규범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한국문학 번역의 장에서 작동하는 번역규범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4. 한국문학번역의 장에서 작동하는 처방적 규범

한국문학의 대표적인 해외소개 창구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규범을 중심으로 한국문학 번역의 장에서 작동하는 규범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규범을 소개하면서 굳이 한국문학 번역의 장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한국문학번역원이 한국문학을 본격적으로 번역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한국문학 번역의 장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01년에 문을 열고 번역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문학을 세계 속에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본 기관은 “수준 높은 번역을 통하여 한국의 도서를 해외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이 선정한 번역지원 대상도서를 중심으로 문학, 인문사회, 아동 분야의 도서 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 <http://www.klti.or.kr/main.do>). 여기서는, 본 논문의 목적상, 인문사회와 아동문학 분야를 제외한 문학분야의 심사평만을 중심으로 번역규범을 고찰한다. 그리고 심사기준과 심사평을 중심으로 드러난 규범을 처방적 규범으로 규정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제시하고 있는 심사기준은 실제 번역된 텍스트를 통해 구현된 규범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학번역원이 정한 번역의 목적에 따라 제시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지면상 2011년도 3분기와 4분기의 심사평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심사평 끝의 괄호 안 내용은 필자의 것임).

2011년도 3분기 심사 총평

불어권의 ... 문체를 포함한 문학적 완성도와 도서의 해당 언어권에서의 수용성까지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완성도, 수용성)

독어권 ... 이는 번역자가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독자들의 기대지평을 반영해 경우에 따라 의미를 부가해 번역하는 등 신경을 많이 쓴 결과로 판단된다. (수용성, 충실성)

스페인어권원문과의 등가성이 높은데다 스페인어도 유려했고 문학적 향취를 적절하게 표현한 번역이었기에 번역지원 대상작으로 최종 선정되었다.(충실성, 가독성, 완성도)

러시아어권 ... 가독성과 문체가 뛰어난 번역이었다. (가독성, 완성도)

중국어권 ... 원문의 표현, 문장 구조, 느낌, 전후 맥락을 충분히 살린 좋은 번역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용한 단어나 번역문도 원문의 느낌처럼 경쾌하고 간결해 매우 흥미진진하게 읽혔다.(충실성, 가독성)

일본어권 ... 번역이 부드럽게 잘 이루어져 있으며 문체와 어조에 있어서도 뛰어난 번역이라는데 내외국인 심사자의 의견이 일치했다. (가독성, 완성도)

베트남어권 ...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으며 가독성이 좋은 상당히 좋은 번역이라는 판단이 들었으며, 몇몇 단어들을 제외하면 독자가 번역된 작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용의 흥미로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성공적인 번역이었다. (가독성)

이태리어 ... 이는 가독성과 문장의 우수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 결과이며 약간의 오타를 제외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번역이라고 판단된다. (가독성, 완성도)

영어권 ... 이번에 선정된 두 작품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심사자가 모두 번역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번역물 자체만 독립적으로 보아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완성도)

2011년도 4분기 심사 총평

4분기부터는 심사 체계가 변경되어 먼저 외국인 심사자가 우선적으로 가독성 등을 중심으로 번역 원고를 심사하여 당락을 결정한 후 ... (가독성)

불어권의 경우, 전자는 번역 원고가 어색함 없이 프랑스 작품처럼 읽히는 문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가독성)

스페인어권은 ... 원작의 문체와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되살린 뛰어난 표현 능력이 돋보인다. ... 언어 표현의 정합성과 문학적 재현의 완성도에서 오류를 찾기 어려운 뛰어난 번역으로 원작 특유의 서정성과 시적 분위기를 훼손 없이 재현하고 있다. (충실성)

중국어권에서는 ... 이 가운데 내외국인 평가자의 가독성과 등가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가독성, 충실성)

러시아어권에서 ... 문법상의 오류도 적고 각주를 통한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가장 우수한 좋은 번역으로 선정... (충실성)

베트남어권에서는 ... 형태와 의미의 등가성에 있어서도 우수한 번역으로 판단 ... (충실성)

몽골어에서는 ... 가독성과 원작에 대한 이해 등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 (가독성, 충실성)

루마니아어에서는 ... 작품 등가성 및 현지 수용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 (충실성, 수용성)

포르투갈어권에서 ... 번역자의 한국어와 포르투갈어 번역 및 문학적 능력을 높게 평가 (가독성)

영어권 ... 1차 심사방식에 변화를 피하여 현재 영미 출판계에 관여하고 있는 심사자가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한 후... (가독성)

2011년 3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심사기준은 완성도, 가독성, 충실성, 수용성이었으며, 완성도와 가독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6개 언어권에서 기준으로 작동했고 그 다음으로 충실성과 수용성이 기준으로 작동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분기에서는 가독성과 충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수용성을 평가한 경우는 루마니아어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수용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착문화권의 어떤 점에서 수용성이 높다고 판단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수용성은 가독성, 충실성, 완성도의 규범에 비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은 영미문학연구회가 영미명작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규범과도 유사하다. 영미문학연구회는 충실성과 가독성을 규범으로 제시하며, 충실성은 “번역문이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번역했는가를 판단하는 영역으로 단어·구절·문장 등에서 부정확하거나 부절절한 번역의 빈도나 정도”로, 가독성은 “번역문의 우리말 구사 수준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대개 문장 차원에서 어색하거나 생경하거나 비문인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영미문학연구회, 2005: 21-22).

한국문학의 외국어로 번역할 때와 외국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적합성의 규범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규범이 왜 문제가 되는가.

5. 한국문학번역과 처방적 규범의 문제점

무엇보다도 한국문학번역에 있어서 처방적 규범의 문제점은 그러한 규범이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출발어 문화권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진 데서 비롯된다. 이는 다양한 도착어 문화권의 다양한 규범을 형성하는데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규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서, 도착어 문화권의 문학 폴리시스템, 병렬텍스트, 독자, 번역전통, 이데올로기, 권력관계, 경제적 요소, 문화의 친숙도(familiarity)를 들었다. 가독성과 충실성이라는 규범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처방적 규범을 제시하기 전에 이들 수용문화권에서 한국문학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

저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 투리가 말하듯이 (1995: 53) 엄격하게 말해 번역규범은 수용문화권에 적용될 뿐이기 때문에 규범설정의 문제는 도착어 문화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권에 따라 규범 또한 다르게 처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한국문학번역의 장에서 작동하는 규범 역시 복수로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문제는 세계문화 속에서의 한국문화의 위치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다. 세계 속의 한국문화는 소수언어 문화이고 아직까지는 “낮선” 문화이다.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낮선 것을 역지로 들이밀기보다는 접근성의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Snow Country)』을 컬럼비아 대학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교수가 소설을 새로 쓰다시피 고쳐서 영어권 서구독자들에게 호소력을 얻은 예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김성곤, 1999: 5).

세 번째 문제는 한국문학번역원이 제시하는 규범이 훌륭한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기준인 것 같은 믿음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영미문학연구회가 제시한 규범과 동일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더욱 굳어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확산에 따라 획일적인 번역가 양산의 문제 또한 우려된다. 체스터만(1999)이 주장하듯이, 현재의 번역규범 이론은 번역에 정답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처방적 차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있다. 그런데 획일적인 처방적 규범은 그러한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네 번째 문제는 획일적인 규범의 확산으로 인해, 다시쓰기 작가(rewriter)로서의 번역가의 개입과 역할을 차단하고 원본에만 충실하게 하는 번역가의 고전적 역할에 묶어둠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통한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산을 차단한다는 점이다. 벤야민이 말하듯이 번역은 원작의 “다음 생애(afterlife)”이다. 원작을 뛰어넘는 번역을 통해 다시 태어나면서 그 “다음 생애”는 훨씬 더 화려할 수도 있다. 가독성과 충실성에서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번역작품 그 자체로서 미학적 완성도와 완결성과 갖는다면 충분하 가치가 있다. 한 가지 원작에 대해서 번역가의 다양한 해석을 통한 다양한 텍스트의 생산 가능성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피츠제럴드의 경우처럼, 번역을 통해 한국문학이 도착어문화권의 문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기회 역시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결론

한국문학번역의 장에서 작동하는 충실성, 가독성의 규범은 폐기해야 할 고대유물이 아니다. 이러한 규범은 특히 다양한 문화를 대상으로 번역기준을 설정해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규범 중의 하나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규범이 훌륭한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기준인 것 같은 믿음을 주고,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한국문화가 낯설기만 한 서구 독자들에게 원작의 미학적 측면만을 고집할 수 있을 것인가. 서구권에서 한국문학을 출판하는 목적과 서구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찾는 목적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성 여부를 고려할 때 평가기준은 충실성과 가독성에만 머물 수 없을 듯하다. 한국문학을 세계 속에 파고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도착어 문화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전략적 차원에서 규범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민 (2000).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4, 7-29.
- 김성곤 (2006). *글로벌시대의 문학*. 서울: 민음사.
- (1999). 한국문학의 세계화. 번역과 홍보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5, 243-255.
- 김종길 외 (1997).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현황과 전망*. 서울: 민음사.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서울: 창비.
- 유럽문화정보센터 (2004).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과거, 현재, 미래*.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정혜용 (2009). 문학번역평가에서 문학번역비평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67, 299-316.
- 한국문학번역원 <http://www.klti.or.kr/main.do>
- Baker, Mona (2001). Norms. In M. Baker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63-165.
- Bassnett, Susan, and Harishi Trivedi (1999).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on Theory*.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Even-Zohar, Itamar (1990). Polysystem Studies. *Poetics Today*, 11(1), special issue.
- (1997). The Making of a Culture Repertoire and the Role of Transfer. *Target*, 9(2), 355-63.
- (2004).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system.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199-204.
- Hermans, Theo (2004). *Translation in Systems Descriptive and System-oriented Approaches Explained*. Shanghai: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ess.
- Kwieciński (1998). Translation strategies in a rapidly transforming culture: a central European perspective. *The Translator*, 4(2), 183-206.
- Lefevere, André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Niranjana, Tejaswini (1992). *Si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lonial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berts, Roda P. (1992). The Concept of Function of Translation and Its Application to Literary Texts. *Target*, 4(1), 1-16.
- Schulte, Rainer & Biguenet, John. (Eds.). (1992).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uttleworth, Mark. & Cowie, Moira. (Eds.).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 Tooper, Pavel (1978). The Achievements of the Theory of Literary Translation. In Paul Horgeulin. (Ed.). *Translating, A Profession: Proceedings of the Eighth*

-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nslators, Montreal 1977. Montreal: CTIC, 41-47.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Yun, Hunam (2010). *Appropriations of Irish Drama by Modern Korean Nationalist Theatre: a focus on the influence of Sean O'Casey in a colonial context*. PhD thesis. <http://wrap.warwick.ac.uk/34647/>